

상담자의 공감과 창의적 인성이 상담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한나¹, 이창환^{2*}
¹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²서강대학교 심리학과

A Study on the Impact of Empathy and Creative Personality of a Counselor on the Working Alliance

Hannah Jung¹ and Chang H. Lee^{2*}

¹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gang University

²Department of Psychology, Sog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공감과 창의적 인성이 상담협력관계 수준을 결정짓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3회기 이상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상담자-내담자 88쌍을 대상으로 상담자와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 및 공감과 상담자의 창의적 인성 수준을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상담자와 내담자가 지각하는 공감과 상담자 창의적 인성 및 상담협력관계 간에는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고, 상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에 대해서는 상담자 공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에 대해서는 내담자 공감, 상담자 공감, 창의적 인성이 영향을 미쳤다. 또한 상담자의 경력수준과 관련하여 상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는 상담 년 수와 전문 자격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와는 전문 자격 수준에 따라 부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Abstract The study focused on how the end result of working alliance is affected by empathy on each group and creative personality of the counselor on their counsel. In order to do so, the level of working alliance, empathy, and creativeness of the counselor are evaluated on the survey. And the survey and analysis are performed by two different groups; counselors and clients, among 88 pairs of people who had counseled at least more than three times. The conclusion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has been found that empathy with each group and creative personality of a counselor is partially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level of working alliance according to the result from both groups.

Second, the consequence of evaluation the empathy of counselor has bigger impact on working alliance in group of counselors. But on working alliance has been affected by empathy for both clients and counselors and creative personality in group of clients.

Last of all, level of working alliance has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years of experience and professionalism in group of counselors. However, there was a parti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working alliance and professionalism in group of clients.

Key Words : Working Alliance, Creative Personality, Empathy

1. 서 론

Erich Fromm(1956)은 사람을 이용하고 물건시하는 현

시대의 병폐가 인간의 존재를 간과한 채 소유의 양식을 추구하는 방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물질의 풍요로움을 얻었을 수는 있으나 인간이 호소

이 연구는 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바탕으로 하여 지도교수가 작성하였음.

본 연구는 2010년도 서강대학교 교내연구비 일부 지원에 의한 연구임 (201010049).

*교신저자 : 이창환(chleehoan@sogang.ac.kr)

접수일 11년 02월 17일

수정일 11년 04월 01일

게재확정일 11년 04월 07일

하는 의로움과 소외,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신체의 질병 못지않게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여 치료 및 상담기관을 찾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신적인 어려움이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가정과 사회의 문제로 확장되는 사례를 종종 접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하여 정신건강을 돕는 숙련된 전문가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치료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성승연, 2008).

상담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을 만나서 소통과 교류의 장을 이루는 것이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하여 상담은 생활과제의 해결과 사고·행동 및 감정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다(이장호, 2007).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까지 상담자의 인간적 자질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담자와 끈끈하고 신뢰성 있는 관계형성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험적 연구에서도 상담자의 자질과 내담자와의 상호관계를 상담의 중요한 치료 요인으로 밝히고 있다(이재창, 1992). 특히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담협력관계(Working Alliance)는 상담 성과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일관되게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Sexton & Whiston, 1994).

상담협력관계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긴밀한 상호작용으로 확립되는 것이므로, 각자의 특성이 상담협력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상담협력관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연구들은 상담협력관계에 미치는 요인으로 내담자의 상담 전 특성(김순영, 1999; 김순진, 1998; Moras & Strupp, 1983), 상담자의 기술적 행위(김동민, 1993; 방기연, 1991; Reandeu & Wampold, 1991), 상담자의 개인적 특성(강혜영, 1995; 김남희, 1994, Mallinckrodt & Nelson, 1991)을 들고 있다(홍수현, 2001).

이에 대해 홍수현(2001)은 국내의 경우 상담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상담자 특성보다는 내담자 특성 연구가 많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상담자 특성 연구에서도 주로 경력 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미시적인 접근에서 상담자의 특성 요인 연구가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따라서 홍수현은 상담자의 개인적 특성 중에서 자기효능감과 상태불안을 상담협력관계에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하여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 이어 황인호(2004), 강석영(2007) 등은 상담자의 역전이 행동을 상담협력관계와 상담 성과를 예측해주는 상담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보고하였다. 물론 이러한 상담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의 특성에 대한 미시적

접근은 상담자의 경력에만 국한되었던 기존의 연구에서 벗어나 다양한 심리적 특성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그런데 상담자의 인간적 자질과 태도 또한 상담협력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공감과 창의적 인성을 상담자의 개인적 특성 요인으로 설정하고, 이 두 변인이 상담자와 내담자가 각기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상담자의 공감은 상담의 필요충분조건인 하나로 Rogers(1957)가 제시한 개념이다. 그는 상담자의 공감을 상담자와 내담자의 치료적 관계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적 태도는 상담협력관계와 관련하여 치료적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상담자의 진실한 보살핌, 존중, 수용 등의 공감적 태도는 효과적인 상담자의 인성 특성에 기인한다(Corey, 2001). 효과적인 상담자의 인성 특성으로는 생기가 있고 진솔하며, 솔직하고 낙관적이며,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수용하고 관심이 넓으며, 유연하고 복잡한 것을 잘 견디며 말이 유창하고 호기심이 많으며, 추진력과 지구력이 있고, 독립적이며, 적절한 모험을 추구하고 최대한으로 경험하려고 하는 것(Corey, 2001; Egan, 1998) 등이다. 여기에서 창의적 인성 특성을 연구한 Barron과 Harrington(1981)은 창의적 인성 특성으로 경험의 미적 특성을 높이 평가, 폭넓은 관심, 복잡한 것에 대해 매력을 느낌, 높은 에너지, 판단의 독자성, 자율, 직관, 자기 신뢰, 자아개념의 이율배반 요소를 해결하거나 명백히 반대 혹은 모순되는 특성을 조절하는 능력, 창의적인 자아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을 제시하였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창의적 인성에 대하여 호기심, 흥미의 다양성, 관심 있는 일에 몰두, 개성, 특이 선호, 탈규범, 모험성, 개방성 등을 보고한 바 있다(김혜숙, 송인섭, 1999). 이것은 상담자의 바람직한 인성 특성과 창의적 인성 특성이 상호 유사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창의적 인성은 상담자의 공감적 태도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둘 사이에 관련성이 있으리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상담자의 공감과 창의적 인성이 치료요인인 상담자와 내담자가 각기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최근 창의적 인성이 미래 사회의 인재가 함양해야 할 창의적 능력을 발전하는데 기여하는 정의적 특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비록 상담에서 창의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인간의 잠재력 및 자아실현

그리고 적응 등의 측면에서 상담과 창의성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2. 연구 가설

상담협력관계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것이며 상담의 기초가 되는 주요 요인으로서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상담관련 하위변인과 창의성 간의 관계와 하위변인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탐색적인 연구의 성격이 강하다는 한계가 있지만 여러 개의 하위가설로 문제를 접근해보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들은 상담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첫째, 내담자의 상담 전 특성(김순영, 1999; 김순진, 1998; Moras & Strupp, 1983), 둘째, 상담자의 기술적 행위(김동민, 1993; 방기연, 1991; Reandean & Wampold, 1991), 셋째, 상담자의 개인적 특성(강혜영, 1995; 김남희, 1994, Mallinckrodt & Nelson, 1991)등으로 시도되었다. 이 중에서 상담자 특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며, 연구의 주체가 경력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후 상담자 특성에 대한 미시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자기 효능감, 상태불안, 역전이 행동 등의 심리적 특성과 상담협력관계와의 관계성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계속되었다(홍수현, 2001).

그러나 심리치료의 공통요인을 다룬 메타연구에서 상담자의 자질과 관계가 가장 중요한 치료요인(이재창, 1992)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적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발적 연구의 일환으로 앞서 상술한 변인의 중요성에 근거하여 상담자의 공감과 창의적 인성을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특성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두 변인이 상담자와 내담자가 각기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1. 상담자와 내담자가 지각하는 공감 및 상담자의 창의적 인성과 상담자와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는 긍정적 상관을 나타낼 것이다.

상담자의 공감적 태도가 효과적인 상담자의 인성 특성에 기인한다는 연구(Corey, 2001)와 효과적인 상담자의 인성 특성과 창의적 인성 특성 간에 공통점이 발견된 연구(Barron & Harrington, 1981)를 바탕으로 두 변인 간에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가설 1-2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2. 상담자와 내담자가 지각하는 공감은 상담자의 창의적 인성과 긍정적 상관을 나타낼 것이다.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는 정적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수현(2001)의 연구에서도 둘 간의 상담협력관계가 정적 상관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반복검증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상담자가 지각한 상담협력관계와 내담자가 지각한 상담협력관계는 긍정적 상관을 나타낼 것이다.

상담자의 공감은 축진적인 관계형성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상담자와 내담자의 협조적인 관계형성을 의미하는 상담협력관계를 예언해주는 절대적 변인의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상담자의 공감은 상담자의 효과적인 인성 특성에 기인하며 효과적인 인성 특성은 창의적 인성 특성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창의적 인성이 상담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검증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지각하는 공감과 상담자의 창의적 인성 요인이 상담협력관계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가설 3-1. 상담자 공감, 내담자 공감, 상담자 창의적 인성은 상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상담자 공감, 내담자 공감, 상담자 창의적 인성은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담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상담자의 경력 수준에 따라 상담협력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였다(강혜영, 1995; 김남희, 1994; Mallinckrodt & Nelson, 1991). 이러한 연구 결과로 보아 상담자의 경력 수준이 높을수록 내담자와의 관계 형성 기술능력이 높을 것이고, 상담자와 내담자가 각자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 수준에도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추

가적인 탐색연구를 실시하였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공공기관 상담소, 대학부설 상담소, 사설 상담소 등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상담자 126명과 함께 현재 상담 진행 중인 내담자들 126명을 대상으로 2010년 10월에 실시하였다. 상담자와 내담자를 한 쌍으로 총 126쌍(252부)에게 배부되었으며, 내담자의 경우 사전에 동의를 구하도록 하였다.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20분이었고, 설문지의 작성 내용이 상담자와 내담자 서로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된 봉투에 밀봉하여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전체 126쌍(252부)에서 90쌍(18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나 2쌍은 내담자용 설문지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서 제외하였고, 총 88쌍(176부)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상담자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하여 성별 분포는 남자 5명, 여자 83명이었으며 연령은 20세에서 50세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상담관련 자격은 임상 및 상담심리전문가 12명, 상담심리사 25명, 청소년상담사 및 전문상담교사 18명, 기타(미술치료, 학습치료 등) 23명이었다. 상담 경력은 1년 미만 12명, 1~3년 27명, 3~5년 26명, 5년 이상이 23명이었으며, 현재 근무지 분포는 공공기관 상담소 52명, 대학부설 상담소 24명, 기타(사설, 복지관 등) 12명으로 집계되었다.

내담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분포는 남자 21명, 여자 67명이었으며, 연령 분포는 10세에서 50세의 범위였다. 학력 분포는 중학교 졸업에서 대학원 재학까지이며, 직업 분포는 학생이 68명, 나머지는 직업인, 주부였다. 지금까지 진행된 상담 회기는 1~10회기가 55명, 11~20회기 21명, 21회기 이상은 12명으로 주로 상담 초기단계 사례였다. 내담자들의 주 호소문제는 가족관계, 대인관계, 진로 및 학업 순으로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상담협력관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Horvath와 Greenberg가 Bordin(1979)의 이론에 기초하여 제작한 상담협력관계 척도(Working Alliance Inventory : WAI)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목표합의(goal agreement), 과제합의(task agreement), 정서적 유대(emotional bond)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6개 문항의 자기 보고식 질문지이다. 각 문항은 1~5의 점수범위를 갖는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담협력관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평가자에 따라서 상담자용, 내담자용, 관찰자용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홍수현(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상담자용과 내담자용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상담자용 WAI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92이며, 하위요인 목표합의, 과제동의, 정서적 유대 순으로 .80, .84, .81로 나타났다. 내담자용 WAI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95이며, 하위요인인 목표합의, 과제동의, 정서적 유대 순으로 .88, .84, .89로 나타났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지각하는 공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Barrett-Lennard(1981)의 관계검사(Barrett-Lennard Relationship Inventory: BLRI)를 정방자(1985)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관계검사의 하위요인으로는 공감, 존중 수준, 일치성, 존중의 무조건성, 개방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85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16문항의 공감척도이다. 이 척도는 평가자에 따라서 상담자용과 내담자용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두 개 모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3에서 +3까지의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코딩 과정에서 1점에서 6점으로 변환하여 채점하였으며 8문항(2, 5, 6, 8, 9, 11, 12, 15)이 역산 처리되었다. 그래서 상한점수는 9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는 .70에서 .75사이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상담자용 .82, 내담자용 .84로 나타났다.

상담자의 창의적 인성 수준을 가능하기 위하여 하주현(2000)이 개발한 창의적 인성 척도(Creative Personality Scale : CPS)를 사용하였다. 창의적 인성 척도는 인지적 영역에 국한되어 개발·사용되었던 기존의 창의성 검사의 범위를 넓히고 창의성의 통합적 차원에서의 측정을 위해서 개발되었다. 과거 창의성을 지적 능력의 하위요인으로 인식하였던 것에서 최근에는 창의성의 독자적 영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창의성의 정적적 성향이 인지 능력, 환경 및 과제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라 창의적 인성 척도 개발과 측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창의적 인성검사를 보완·수정하고, 아동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를 짚 수 있는 검사 개발하는 목적으로 제작된 창의적 인성검사(CPS)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상담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성 검사나 창의적 인성검사가 개발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검사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인을 대상으로 제작된 CPS를 사용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 장면에서의 상담자의 창의적 인성 특성을 정확히 측정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하는 바이다. 그러나 상담에서 창의성과 상담자의 창의적 특성이 언급되는 시점에서 상담자의 창의적 인성을 측정해보는 작업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의 하위요인은 총 8개로 호기심, 상상, 인내/집착, 유머감, 자기확신, 독립심, 개방성, 모험심으로 구성되었다. 하주현(2000)은 검사 개발과정에서 예비 검사를 통해 총 42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으나 2차에 걸친 요인분석 결과 12개의 문항이 하위요인 부하량에 미달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42문항의 창의적 인성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나 실제 분석에서는 12문항(4, 5, 9, 10, 16, 18, 19, 22, 23, 29, 38, 40)을 제외 한 30 문항으로 분석하였다. 각 문항은 1점에서 5점의 점수범위를 갖는 Likert 척도이며 높은 점수일수록 창의적 인성 수준이 높다고 평가된다. 기존연구에서 신뢰도 계수의 범위는 .45에서 .79로 나타났으며, 개방성 하위요인이 .45로 다른 요인에 비해 낮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88이며, 하위요인 별로 .45에서 .83까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개방성과 모험심의 신뢰도 계수가 각각 .46, .45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4. 분석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상담자의 공감과 창의적 인성이 상담협력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상관분석, 변량분석,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와 상담자의 창의적 인성 및 상담자와 내담자가 지각하는 공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공감(BLRI) 및 상담자 창의적 인성(CPS)과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담협력관계(WAI) 간의 상관

	상담자 WAI				내담자 WAI			
	총점	목표	과제	유대	총점	목표	과제	유대
상담자 BLRI	.65**	.56**	.63**	.58**	.30**	.23**	.30**	.31**
내담자 BLRI	.28**	.28**	.26*	.23*	.82**	.74**	.80**	.77**
상담자CPS 총점	.04	.09	-.04	.05	-.08	-.08	-.06	-.07
호기심	-.02	.02	-.06	.01	-.20	-.23*	-.16	-.17
상상력	-.16	-.12	-.17	-.16	-.19	-.18	-.18	-.17
인내심	.21	.31**	.13	.14	.12	.11	.10	.09
유머감	-.13	-.10	-.15	-.12	-.05	-.04	-.02	-.08

자기확신	.33**	.28**	.27**	.37**	.14	.19	.12	.17
독립심	.28**	.23**	.26**	.29**	.14	.14	.13	.12
개방성	-.13	-.07	-.20	-.10	.02	.02	.00	.02
모험심	-.15	-.13	-.18	-.09	-.27*	-.26*	-.22*	-.29*

*p<.05 **p<.01(2-tailed)

상관분석결과 상담자와 내담자가 지각하는 공감과 상담협력관계 간의 상관은 p<.05와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나고 있다. 상담자가 지각하는 공감에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는 모두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고, 내담자가 지각하는 공감에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는 p<.05와 p<.01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상담자 창의적 인성의 하위요인 중에서 인내심과 자기확신, 독립심이 상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와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담자의 인내심은 상담자 상담협력관계의 목표합의와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기확신과 독립심은 상담자 상담협력관계의 총점과 하위요인 모두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다르게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와 창의적 인성의 하위변인 중에서는 호기심과 모험심이 p<.05 수준에서 부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모험심은 내담자 상담협력관계의 총점과 각 하위변인에서 모두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었고, 호기심은 목표합의의 하위요인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위와 같은 결과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지각하는 공감과 상담협력관계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지만, 상담자 창의적 인성과 상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 간에는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와는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가설 1-1 “상담자와 내담자가 지각하는 공감 및 상담자의 창의적 인성과 상담자와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는 긍정적 상관을 나타낼 것이다.” 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가설 1-2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담자와 내담자가 지각하는 공감과 상담자의 창의적 인성 간의 상관을 표 2에서 보여주고 있다.

[표 2] 상담자 창의적 인성(CPS)와 상담자·내담자 공감(BLRI) 간 상관

	상담자 BLRI	내담자 BLRI
상담자CPS		
총점	.09	-.07
호기심	.88	-.09
상상력	-.02	-.12
인내심	.19	.02
유머감	-.16	-.09
자기확신	.28**	.12
독립심	.22**	.14
개방성	-.14	.06
모험심	-.12	-.27**

*p<.05 **p<.01(2-tailed)

상담자의 창의적 인성 하위변인 중에서 자기확신, 독립심이 상담자가 지각한 공감과 p<.01 수준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상담자의 창의적 인성 하위변인 중에서 모험심은 내담자가 지각한 공감에서 p<.05 수준에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상담자 창의적 인성 하위변인 중 일부와 상담자가 지각하는 공감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내담자가 지각하는 공감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기 때문에 “상담자와 내담자가 지각하는 공감은 상담자의 창의적 인성과 긍정적 상관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가설 1-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표 3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3] 상담자·내담자 상담협력관계(WAI)간 상관

	내담자 WAI			
	총 점	목표합의	과제동의	정서유대
상담자 WAI				
총 점	.39**	.34**	.36**	.40**
목표합의	.39**	.39**	.38**	.34**
과제동의	.38**	.34**	.35**	.36**
정서유대	.28**	.19	.24*	.36**

*p<.05 **p<.01(2-tailed)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담자와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 간의 상관관계는 상담자 상담협력관계의 하위요인인 정서유대와 내담자 상담협력관계의 하위요인인 목표합의를 제외하고, 모든 하위변인에서 p<.05와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상담자가 지각한 상담협력관계와 내담자가 지각한 상담협력관계는 긍정적 상관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앞선 상관분석 결과에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지각하는 공감 및 상담자의 창의적 인성과 상담자와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감과 창의적 인성 요인이 상담협력관계의 수준을 예언하는 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물론 상담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공감과 창의적 인성 효과성을 비교 한 선행연구는 없다. 그러나 세 변인들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 결과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탐색적 수준에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를 예언해주는 변인으로 상담자와 내담자가 지각하는 공감과 상담자의 창의적 인성의 효과성을 비교해 보는 시도도 의미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의 표 4와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표 4] 상담자 상담협력관계에 대한 상담자 공감과 내담자 공감 및 상담자 창의적 인성 단계적 회귀분석 (n=88)

단계	변인	B	β	F	R	R ²	R ² 변화량
		1.75					
1	상담자 공감	.48	.65	61.19**	.65	.42	.42
		1.34					
2	상담자 공감	.46	.62				
	내담자 공감	.10	.18	34.49**	.67	.45	.03

* p < .05, ** p < .01

B : 비표준화 회귀계수, β:표준화 회귀계수, R: 중다상관계수

표 4는 상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를 예언해주는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예측하기 위하여 상담자의 상담협력관계에 대해 상담자와 내담자가 인식하는 공감과 상담자의 창의적 인성 하위요인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그 결과 상담자 공감, 내담자 공감, 창의적 인성 하위요인의 변인들을 투입할 경우 상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에 45%의 설명력을 가지며, 창의적 인성을 제외한 상담자 공감, 내담자 공감 순으로 산출되었다. 상담자 공감은 42%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지고 여기에 내담자 공감이 첨가되면서 설명력이 3% 증가하여 45%의 설명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상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상대적 중요도는 상담자 공감, 내담자 공감 순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의적 인성 하위요인은 제외되었다.

상기의 결과는 상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에 창의적 인성이 제외된 채 상담자 공감, 내담자 공감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가지면서 가설 3-1 “상담자 공감, 내담자 공감, 상담자 창의적 인성은 상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를 예언해주는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예측하기 위하여 내담자의 상담협력관계에 대해 상담자와 내담자가 인식하는 공감과 상담자의 창의적 인성 하위요인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내담자 WAI에 대한 내담자 공감과 상담자 공감 및 상담자 창의적 인성 단계적회귀분석 (n=88)

단계	변인	B	β	F	R	R ²	R ² 변화량
1	내담자 공감	.60	.82	173.14**	.82	.67	.67
		.54					
2	내담자 공감	.58	.79				
	상담자 공감	.17	.17	97.72**	.84	.70	.03
3	내담자 공감	.57	.77				
	상담자 공감	.18	.19				
	호기심	-.10	-.14	70.78**	.85	.72	.02
4	내담자 공감	.57	.77				
	상담자 공감	.16	.17				
	호기심	-.14	-.20				
	인내심	.12	.14	57.11**	.86	.73	.02

* p < .05, ** p < .01

B : 비표준화 회귀계수, β: 표준화 회귀계수, R: 중다상관관계수

내담자의 상담협력관계에 대해 내담자가 인식하는 공감과 상담자가 인식하는 공감 및 상담자 창의적 인성 하위요인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경우 내담자 감, 상담자 공감, 호기심, 인내심 순으로 산출되었다. 즉, 내담자 공감, 상담자 공감, 창의적 인성 하위요인을 투입할 경우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에 73%의 설명력을 가지며,

그 중에서 내담자 공감이 67%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진다. 또한 여기에 상담자 공감이 첨가되면서 설명력이 3% 증가하며, 호기심이 첨가되면서 2% 증가되고 인내심이 첨가되면서 1% 증가하여 73%의 설명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상대적 중요도는 내담자 공감, 상담자 공감, 창의적 인성 하위요인 중에서 호기심과 인내심 순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담자 공감, 내담자 공감, 상담자 창의적 인성은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3-2는 지지되었다.

앞선 결과들과 더불어 상담자의 경력수준에 따라 상담자와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경력요인을 상담 년 수와 자격증으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상담자의 경력 수준 중에서 상담 년 수를 1년 미만, 1~3년, 3~5년, 5년 이상으로 나누어 상담자와 내담자가 지각한 상담협력관계의 평균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상담 년 수에 따른 상담자·내담자 상담협력관계(WAI) 차이

	평균(표준편차)				F
	1년 미만 (n=12)	1~3년 (n=27)	3~5년 (n=26)	5년 이상 (n=23)	
상담자 WAI					
총 점	3.78 (.32) ^a	3.72 (.30) ^a	3.74 (.31) ^a	4.14 (.27) ^b	10.34**
목표합의	3.60 (.28) ^a	3.49 (.39) ^a	3.53 (.32) ^a	3.95 (.33) ^b	8.87**
과제합의	3.78 (.36) ^a	3.74 (.35) ^a	3.75 (.39) ^a	4.16 (.33) ^b	7.48**
정서유대	3.97 (.36) ^a	3.94 (.30) ^a	3.93 (.34) ^a	4.32 (.27) ^b	8.30**
내담자 WAI					
총 점	4.00 (.39) ^a	4.04 (.39) ^a	4.01 (.57) ^a	4.26 (.35) ^a	1.69
목표합의	4.08 (.42) ^a	4.02 (.47) ^a	4.03 (.60) ^a	4.25 (.37) ^a	1.15
과제합의	3.96 (.41) ^a	4.01 (.41) ^a	4.00 (.57) ^a	4.21 (.37) ^a	1.36
정서유대	3.96 (.39) ^a	4.10 (.43) ^a	4.01 (.62) ^a	4.32 (.39) ^a	2.26

*p<.05 **p<.01(2-tailed)

¹⁾은 각 하위요인별 개별비교(Tukey 검증)결과이며, 같은 문자를 공유하고 있는 쌍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서로 다른 문자의 쌍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6을 보면, 상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는 상담자의 상담 년 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F=10.34,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ukey검증 결과에 의하면 1년 미만 집단과 1~3년 집단 및 3~5년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5년 이상 집단에서 세 집단과 비교해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각 하위요인별로도 목표합의(F=8.87, p<.01), 과제합의(F=7.48, p<.01), 정서유대(F=8.30, p<.01)가 5년 이상 집단과 세 집단의 비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는 상담자의 상담 년 수가 5년 이상인 집단에서 평균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상담자의 상담 년 수가 상담자와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인식됨을 시사한다. 곧 상담자의 경력 수준이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보다 상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강혜영, 1995).

상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에 따라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인식하는 상담협력관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었다.

[표 7] 자격증에 따른 상담자·내담자 상담협력관계(WAI) 차이

	평균(표준편차)				F
	자		격		
	임상·상담 심리전문가 (n=12)	상담 심리사 (n=25)	청소년 및 학교상담전 문가 (n=18)	기타 (n=23)	
상담자 WAI					
총 점	4.26 (.31) ^a	3.81 (.34) ^b	3.75 (.29) ^b	3.79 (.29) ^b	8.65**
목표합의	4.17 (.37) ^a	3.58 (.31) ^b	3.51 (.33) ^b	3.59 (.32) ^b	12.57**
과제합의	4.27 (.32) ^a	3.85 (.42) ^b	3.76 (.36) ^b	3.78 (.33) ^b	6.13**
정서유대	4.35 (.29) ^a	4.00 (.39) ^b	3.98 (.30) ^b	4.02 (.31) ^b	3.91
내담자 WAI					
총 점	4.42 (.41) ^a	4.05 (.44) ^{ab}	4.05 (.50) ^{ab}	3.99 (.35) ^b	2.88*
목표합의	4.41 (.50) ^a	4.05 (.48) ^a	4.04 (.55) ^a	4.01 (.35) ^a	2.13
과제합의	4.40 (.38) ^a	4.02 (.48) ^{ab}	4.04 (.48) ^{ab}	3.90 (.35) ^b	3.47*
정서유대	4.44 (.42) ^a	4.07 (.47) ^a	4.07 (.55) ^a	4.04 (.42) ^a	2.24

*p<.05 **p<.01(2-tailed)

¹⁾은 각 하위요인별 개별비교(Tukey 검증)결과이며, 같은 문자를 공유하고 있는 쌍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서로 다른 문자의 쌍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상담자의 수련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상담관련 자격증은 한국상담심리학회 기준으로 상담심리전문가(1급), 상담심리사(2급)와 임상심리사(1, 2급), 청소년상담사(1, 2, 3급), 전문상담교사(1, 2급), 기타(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놀이치료사 등)로 구분하였다. 집단 비교의 용이성과 대표성을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요구되는 수련의 기간과 자격의 전문성 정도를 나타내는 차이에 따라서 상담심리전문가와 임상심리사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었으며,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상담사와 전문상담교사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청소년 및 학교상담전문가로 재 명명하여 표 7에 제시하였음을 밝힌다.

분석결과, 상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는 자격증 종류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F=8.65, p<.01)가 있었으며, 각 하위요인에서 정서유대를 제외하고, 목표합의(F=12.57, p<.01), 과제합의(F=6.13, p<.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ukey검증 결과에 의하면 임상·상담심리전문가 집단이 세 집단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에 있어서는 총점과 과제합의 하위요인에서 차이를 보였다.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는 자격증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F=2.88, p<.01)를 보이고 있으며, 하위요인 중에서 과제합의가 유의미한 차이(F=3.47, p<.05)를 나타내고 있다. Tukey검증을 한 결과 상담심리사와 청소년 및 학교상담전문가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임상·상담심리전문가 집단과 기타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상담자의 상담 년 수에 따른 차이가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상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상담자 자신에 대한 평가와 상담협력관계를 맺는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의 경험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또한 상담자와 내담자가 인식하는 상담협력관계는 상담자의 전문자격 보유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담자와 내담자가 인식하는 데에는 서로 다른 차이가 있음이 동일하게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공감과 창의적 인성이 상담협력관계 수준을 결정짓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것을 통하여 상담자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성장방향에 상담자의 인성적 특성 및 자질 요인의 의미를 재조명하였고, 상담과 창의성의 관련성을 찾아보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는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자와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는 상

담자와 내담자가 지각하는 공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상담자의 창의적 인성 특성과는 하위변인에서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상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의 목표합의와 창의적 인성의 인내심이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창의성 인성 하위요인 중에서 자기확신과 독립심이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와 상담자의 창의적 하위변인과는 부분적으로 부적 상관을 이루었는데 호기심과 목표합의, 모험심과 전체 변인 간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상담자의 인성적 특성과 태도가 심리치료의 공통요인으로 나타났던 기존메타연구(이재창, 1992)의 경향성을 지지해 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상담자의 창의적 인성적 측면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창의적 인성의 각 하위요인 특성과 상담협력관계와의 이론적 관련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상담자와 내담자가 지각하는 공감은 상담자의 창의적 인성 하위변인과 부분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상담자가 지각하는 공감은 상담자 창의적 인성의 하위변인 중 자기확신과 독립심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 내담자가 지각하는 공감은 상담자 창의적 인성 하위변인 중 모험심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공감에 대한 선행연구(Rogers, Gendlin, Kiesler, & Traux, 1967)에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인식하는 공감의 정도가 불일치 하다는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공감을 지각하는 데 있어서도 상담자의 창의적 인성의 특징이 상담자와 내담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셋째, 상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와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는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내담자 지각의 상담협력관계 중 목표합의와 상담자 지각의 상담협력관계 중 정서유대의 하위변인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것은 기존 연구에서 정서유대 하위변인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던 결과(홍수현, 2001)와 일치한다.

넷째, 상담자와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의 예언변인으로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지각하는 공감과 상담자 창의적 인성의 효과성 비교에서 상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에 대해서는 상담자 공감이 강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내담자 공감이 제시되었고, 창의적 인성 하위변인은 제외되었다.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에서는 내담자 공감이 강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담자 공감, 호기심, 인내심 순으로 설명력을 가졌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와 내담자

각자가 지각하는 공감과 상담협력관계의 수준은 같으나 서로의 공감 수준과 상담협력관계 수준에서는 불일치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상담자의 창의적 인성 중에서 상담자의 호기심과 인내심의 특징은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경향성을 가진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의 경력 수준인 상담 년 수와 전문 자격 수준에 따른 상담자와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상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는 상담 년 수와 전문 자격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와는 전문 자격 수준에 따라 부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상담자의 경력 수준에 대하여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보다 상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강혜영, 1995). 또한 상담 년 수가 오래되고, 전문 자격 수준이 높을수록 상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에서는 전문 자격 수준에서만 차이가 있었다. 이는 상담자의 상담 년 수보다는 훈련 시기와 전문성을 보여주는 자격 수준이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 수준에 의미 있게 작용됨을 추론할 수 있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상담협력관계와 공감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의 형태로 볼 수 있지만 상담의 장면에서는 각자가 지각하는 주관적 경험 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상담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지각하는 수준과 내담자가 경험하는 것이 다를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상담자의 창의적 인성의 하위변인 중에서 인내심, 자기확신, 독립심의 특징은 상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와 공감에 있어서 유의미한 경향성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유의미한 창의적 인성 하위변인의 구성개념을 살펴보면, 인내심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정을 끝까지 해내려는 경향이며, 자기확신은 자신의 창의적 능력과 존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성향이다. 그리고 독립심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평가에 개의치 않고 혼자서 일을 하려는 성향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상담자의 창의적 인성의 특징은 내담자의 협력적 관계 형성 인식에 있어서 보다 의미 있게 평가하려는 특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상담자의 이러한 창의적 인성 특성이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와 공감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경향성은 있으나 유의미한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수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와 공감에 있어서 상담자의 창의적 인성 특성은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의 창의적 인성 하위변인으로는 호기심, 모험심, 인내심이다. 상담자라면 내담자에 대한 관심을 기본으로 하여 실패를 겪어낼 만한 내적 힘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창의적 인성특성과 부적인 유의미성을 보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자의 공감과 이론적으로 가장 유사할 것 같은 새로운 경험이나 생각을 기꺼이 수용하려는 성향을 의미하는 개방성의 특성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은 지금까지 연구되어 왔던 창의적 영역과 상담에서 요구되는 특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상담자의 경력 수준과 상담협력관계와 관련해서도 상담자와 내담자의 지각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경력 수준이 높을수록 상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와 공감의 수준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와 공감에서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력수준이 높은 경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고 상담자로서의 주관적 평가가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내담자가 지각할 때는 상담자의 상담 년 수는 큰 의미가 없었으며 전문 자격 수준에서 전문성을 갖는 수준에 따라 총점과 과제 함의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상담자의 상담 년 수 보다는 상담자로서의 전문적 훈련 수준이 내담자가 지각하는 공감에 유의함을 의미한다. 이는 상담자체가 두 사람 간의 다양한 경험이 교환되는 장면이면 살아있는 장임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상담 기법이라 할지라도 모든 상담 장면과 관계에 있어서 획일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매 상황마다 내담자를 대하는 상담자의 인성적 자질과 태도가 더욱 중요하게 자리매김 할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사회에서 상담의 역할과 위치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것은 상담자의 전문성과 인성적 자질 및 태도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의미한다. 심리적 소외와 고립, 정신적 고통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연결 고리를 부여하고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상담자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자에게 필요한 인성적 특성과 자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내담자와의 촉진적 관계를 이루는 상담협력관계와 상담자의 공감적 태도, 이러한 태도를 발현 시킬 수 있는 상담자의 창의적 인성에 대한 연구도 새롭게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상담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상담 성과와 상담

협력관계의 관련성 연구와 상담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을 살펴본 연구들은 있어왔지만 상담자의 인성적 특성과 자질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또한 상담 영역에서 창의성에 대한 언급이 적으며 상담자의 창의적 인성에 대한 이론적 연구(황임란, 2002)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인의 창의성과 창의적 인성이 미래 사회에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관심과 조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상담자의 창의적 인성 특성뿐만 아니라 상담에서 말하는 치료적 요인과 창의성의 특징과의 공통 요인, 내담자의 창의성 발현과 상담에서의 효과 요인의 관련성 등 다양한 연구 주제로 넓혀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상담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기존 요인들을 제외하고 상담자의 인성적 특성과 자질 측면에서 공감과 창의적 인성이 상담협력관계에 유의미한 영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또한 상담협력관계와 공감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담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지각하는 측면까지 제시하여 결과의 다양한 관점과 가졌고, 이를 경험적으로 증명하였는데 그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에서 창의성에 대한 관심과 경험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상담자의 창의적 인성과 상담의 효과적인 요인에 대한 본 연구의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상담에서 창의성의 역할과 공통 특성에 대한 접근과 상담전문가 집단이 생각하는 상담에서의 창의적 요인을 다루는 질적 접근 등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창의성 인성 척도는 기존에 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던 창의성 인성 척도에서 성인으로 대상을 확장하였기 때문에 성인 상담자에게 사용하기에는 용이하나, 상담자의 창의적 인성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따라서 상담자의 창의적 인성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척도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일부분의 상담자-내담자 쌍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상담자 수준 또한 초보에서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유형도 다양하기 때문에 전체 상담자와 내담자를 대상으로 일반화하는 데에 제한점이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상담자 상담협력관계, 공감, 창의적 인성 수준의 측정과 내담자 상담협력관계, 공감 수준의 측정이 자기보고식 설문지에 의한 것이므로 주관

성 개입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상담의 효과성과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관계성에 대한 문항들이 실제보다 이상적으로 답변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객관적 접근을 통해 주관성 개입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인성적 특성 및 자질 요인이 상담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상담협력관계가 상담 성과를 예언해주는 강력한 요인이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회기 진전에 따라 변화하는 상담 만족도 및 상담 성과에 대한 수준을 검토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여섯째, 상담자의 다양한 요인처럼 내담자 특성도 상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상담자 변인 이외에 내담자 변인을 통제하여 내담자의 상담 동기, 주요소 문제, 문제의 심각성 등에서 유사한 내담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는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강석영. "상담자 자기효능감과 상담성과의 관계에서 상담자 역전이 행동 및 내담자 협력관계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2007.
- [2] 강혜영. "상담자 경력에 따른 상담협력 관계의 차이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5.
- [3] 김남희. "상담초기에 있어서 상담자의 경험 수준과 치료적 작업동맹 형성과의 관계", 석사논문, 영남대학교. 1994.
- [4] 김동민. "상담초기 작업동맹 형성에 관한 상담자와 내담자의 언어상호작용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3.
- [5] 김순영. "내담자의 부모유대 및 성인애착능력이 상담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99.
- [6] 김순진. "내담자의 대상관계 수준, 작업동맹 및 상담 중 의사소통방식의 관계",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1998.
- [7] 김창대, 권경인, 한영주, 손난희. "상담성과를 가져오는 한국적 상담자 요인", 한국상담학회지; 상담학연구 9(3). 961-986. 2008.
- [8] 김혜숙, 송인섭. "창의적 개념정립을 위한 탐색적 연구-암시적 창의성 이론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3(3). 93-117. 1999
- [9] 박주용. "창의성, 개인차를 보이는 하나의 인지적 기술인가?" 한국인지과학회논문지, 제13권 제4호. 2002.
- [10] 방기연. "상담초기 작업동맹과 상담자 반응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1.
- [11] 성승연. "효과적인 치료자 요인에 대한 고찰", 동서사상연구소논문집; 동서사상 제5집. 2008.
- [12] 성은현. "창의성 상하 집단의 지적 능력과 인성 특성 비교 -아동학과 유아교육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3). 67-86. 2003.
- [13] 이장호. "상담심리학 제4판", 서울:박영사. 2007.
- [14] 이재창. "상담자의 인성적 특성과 전문성의 발달", 교육연구논총 8권 47-68. 1992.
- [15] 이정규. "창의성의 최근 연구동향과 논쟁", 한국학술정보주. 2005.
- [16] 이형주. "상담자의 공감, 상태-특성불안, 완벽주의 부정적 결과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2009.
- [17] 임선하. "창의성에의 초대", 서울 : 교보문고. 1993.
- [18] 정방자. "정신역동적 상담과정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언어반응 변화분석",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1986.
- [19] 하주현. "한국의 창의적 인물의 성격 특성 및 인간관계 연구", 영재와 영재교육 제8권 제3호. 247-273. 2009.
- [20] 하주현. "창의적 인성 검사 개발", 교육심리학회지 14(2). 187-210. 2000.
- [21] 홍수현. "상담초기단계에서 상담자의 자기 효능감 및 상태불안이 상담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2001.
- [22] 황인호. "상담자 자기효능감과 역전이 행동 및 상담협력관계가 상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2004.
- [23] 황임란. "창의성의 인간중심 상담적 이해와 응용", 한국상담학회지; 상담학연구 3(2). 481-498. 2002.
- [24] Barron, F., & Harrington, D. M. Creativity, intelligence, and personalit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2, 439-476. 1981.
- [25] Bergin, A. E., & Strupp, H. H. *Changing frontiers in the science of psychotherapy*. Chicago: Aldine-Atherton. 1972.
- [26] Carter, J. A., & Gelso, C. J. *The relationship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Components, consequences and theoretical antecedent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3, 155-243. 1985.
- [27] Corey, G.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6th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2001.
- [28] Egan, G. *The Skilled helper: A Problem-management approach to helping(6th ed)*. Ca: Brooks/Cole. 1998.
- [29] Erich Pinchas Fromm. *The Art of loveing* 1956. [황문수 역. 사랑의 기술. 서울 : 문예출판사. 2000.]

- [30] Mallinckrodt, B., & Nelson, M. L. Counseling training level and the formation of the psychotherapeutic working allia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133-138. 1991.
- [31] Moras, K., & Strupp, H. *Pretherapy interpersonal relations, patients' alliance, and outcome in brief therapy*. *Archives General Psychiatry*, 39, 405-409. 1983.
- [32] Reandean, S. G., & Wampold, B. E. Relationship of power and involvement to working alliance: A multiple-case sequential analysis of brief 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107-114. 1991.
- [33] Rogers, C. R.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therapeutic personality chang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1, 95-103. 1957.
- [34] Rogers, C. R. *A Way of Being*, Mariner Books. 1995. [오제은 역. **사람-중심 상담**. 서울 : 학지사. 2009.]
- [35] Runco, Mark Andrew. *Creativity : theories and themes : research, development, and practice*. AcademicPr. 2007. [전경원 외 역. **창의성 : 이론과 주제**. 시그마프레스. 2009.]
- [36] Sexton, T. L., & Whiston, S. C. The status of the counseling relationship: an empirical review, theoretical implication, and research direc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vol. 22, 6-27. 1994.

이 창 환(Chang Hwan Lee)

[정회원]



- 1993년 8월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문학사)
- 1999년 8월 :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심리학과 (철학박사)
- 2007년 9월 :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언어심리학, 인지심리학, 인지과학

정 한 나(Hannah Jung)

[정회원]



- 2011년 2월 :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졸업(교육학석사)
- 2009년 1월 : 인천남부 Wee센터 전문상담사

<관심분야>

상담심리